

시계바늘이 빨리 움직였으면 하는 이유

글 | 채현민

본 글은 앞으로 방영될 드라마나 영화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후에 영화 제작사에서 발표한 정보를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글은 낡은 정보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사실 본문의 영화들 외에도 2015년의 기대되는 영화는 상상 이상이다. 아직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적진 않았으나, 판타지물의 전설인 스타워즈 <스타워즈 : 에피소드7>와 쥘리안 공원 시리즈가 <쥘리안 월드>로 돌아올 예정이고, 소설 원작의 영화 헝거게임 시리즈가 <헝거게임 : 모킹제이 part2>로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 또한 <007>의 24번째 작품으로 다니엘 크레이그가 연기한 제임스 본드의 모습과 올해 2014년 큰 인기를 모은 <메이즈 러너>의 후속작 <메이즈 러너 : 스코치 트라이얼>이 개봉될 예정이고, 얼마 전 고인이 된 폴 워커의 유작 <분노의 질주 7>도 개봉할 예정이다. 정말 2015년은 기대되는 작품이 쏟아진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다.

BBC 채널의 인기 드라마의 귀환
셜록 시즌4



2010년, 무려 180개국에 수출 되서 세상을 다시 설록홀즈 신드롬에 빠트렸던 BBC 채널의 드라마 '셜록'. 영국에선 최고의 명예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BAFTA에서 최고의 드라마 작품상을 수상하고, 2014년 8월엔 에미상의 7개 부분을 휩쓰는 등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보이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설록 역할의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에게 '잘 못생긴 남자', '못생긴 사람 중 가장 잘생긴 남자'(혹은 그 반대라던가)와 같은 별명을 붙여주는 등 광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해에 방영되는 기간이 정해진 미국 드라마와는 다르게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라는 갭을 두고 방영했으니 그 기나긴 기다리는 기간 때문에 팬들을 미치게 만들기도 한다. 각본, 제작 담당의 스티븐 모팻은 시즌 4의 3개의 에피소드를 2015년 안에 제작할 것이라 했으니 방영은 짧아도 2016년에 될 예정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기다리는 팬들에게겐 고문. 또한 모팻은 팬들에게 시즌4의 내용은 (안 그런 적도 없지만) 굉장히 충격적일 것이라는 예고도 했다.

배우 '수현' 등장하는
최고의 히어로 영화
어벤져스2 : 에이지 오브
브 울트론



원래 트레일러 영상은 10월 28일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한국 시간으로 23일에 유출되어 결국 마블은 하이드라(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악당세력)의 공간으로 트레일러가 유출되었다는 센스 넘치는 코멘트를 날려주고 과감하게 공개하였다.(물론 이런 재치 있는 대치는 둘째 치고 유포자는 고소당했지만) 그런데 아직 개봉을 한참 앞둔 주제에 트레일러가 공개되자 바로 포털사이트 실검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아마도, 아니 단언컨대 2015년 최고의 기대작. 트레일러 영상에 대한 추측과 진실, 떡밥에 대해 다 나열하자면 밀도 끝도 없고 원작 만화를 모르면 이해하기도 못할 테니 다 쓰진 않겠지만, 영상에 나온 떡밥만으로 이미 팬들 사이에서 해석논란이 치열한데, 블랙위도우와 헐크의 기묘한 교류와 아이언맨의 역살을 잡는 토르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이목을 끄는 아이언맨이 헐크에게 대항하기 위해 만든 슈트인 헐크버스터를 입고 헐크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등 팀 내 불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부서진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와 그 옆에 쓰러져 있는 토르의 모습을 보이는 등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훨씬 더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대를 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영화 일부를 한국에서 촬영하여 현재 최고로 추앙받는 히어로 영화에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아름다운 한국배우 '수현'의 등장이 있기에 국내 팬들에게엔 더욱 더 기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엄청난 기대와 불안
한 몸매 안고 제작 중
배트맨 V 슈퍼맨
: 돈 오브 저스티스



영화 '맨 오브 스틸'의 후속작이자 독보적인 마블 코믹스 영화 흥행의 대항마가 될 존재. 사실상 미국 슈퍼히어로 영화는 마블코믹스가 다해먹고 있고 DC코믹스는 아직 발도 못 붙이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DC 코믹스에도 마블코믹스의 '어벤져스'처럼 히어로들이 총집합한 팀이 있으니, 바로 '저스티스 리그'이다. 원래는 맨 오브 스틸이 아닌, 다른 슈퍼맨 영화 <슈퍼맨 리턴즈>가 시발점이 될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엮어지고, 그 후 다시 영화 <그린랜턴 : 반지의 선택>이 시발점이 될 예정이었으나, 영화가 흑역사 수준으로 망하고 난 나머지 계속 미뤄졌던 저스티스 리그의 실사판 영화가 이제야 시작되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영화는 시작부터 너무 휘청거리는 게 아닌 건가?라는 걱정이 든다. 원두먼 역할을 맡게 될 유대인 배우 겔 가돗은 극중 배역과는 어울리지 않게 자신의 SNS를 통해 이스라엘을 응원하여 논란이 일었고, 심지어 배트맨 역할에 배우 '벤 애플렉'이 확정되자 몇몇 이 캐스팅에 불만을 가진 팬들은 애플렉에게 살인 혐박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팬들은 영화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에서 조커 역할을 맡은 히스 레저와 갇우먼 역할을 맡았던 앤 해서웨이가 처음엔 원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많은 비판과 우려를 받았으나 영화 방영 후엔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반해 애플렉이 연기하는 배트맨도 좋을 것이라고 기대 중이다. 이렇게 시작부터 엄청난 기대와 불안을 한 몸매 안고 제작되고 있는 <배트맨 V 슈퍼맨 : 돈 오브 저스티스>, 과연 흥행에 성공해 DC코믹스도 영화계에 발을 붙이게 될 수 있을까의 문이다.

톰 크루즈의 액션신과
흥미진진한 줄거리
미션 임파서블 5



위 사진은 미션 임파서블4 : 고스트 프로토콜의 이미지이다.

톰 크루즈 하면 떠오르는 작품은 역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할 수 있다. 물방울이나 바퀴벌레가 기어가고 경보음이 울리는 방을 공중에서 침투해 해킹하는 장면과 선글라스로 정보 전달을 받은 후 자폭하려는 선글라스를 던지는 모습은 이미 여러 작품에서 오마주가 된 기억에 남을 명장면이다. 또한 테마곡인 'Take a look around'는 모르는 간첩인 노래일 정도로, 액션물 중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작품 중 하나인 미션 임파서블이 돌아온다. 촬영은 2014년 8월에 시작되었다고 하고, 각본은 유명한 비디오 게임인 <콜 오브 듀티 : 모던 워페어 3>과 <니드 포 스피드 : 라이벌>의 각본을 맡은 윌 스테이플스가 맡았다. 그런데 이걸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높은 인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으나 이치에 맞지 않고 막장인 스토리 때문에 비판도 상당히 많은 게 임인지만 걱정되지만, 한편 최근 작 <미션 임파서블 4 : 고스트 프로토콜>에서는 접착 장갑을 끼고 고층 빌딩을 어떠한 안전장비도 없이 올라가는 손을 땀을 쥐게 한 명장면을 보여준 미션 임파서블이 이번에는 어떠한 명장면을 선보일지도 기대가 된다.

마지막 이야기,
더 이상 속편은 없다
테이큰 3



액션 노장 리암 니슨의 대표작 <테이큰> 트릴로지의 종지부를 찍게 될 작품. 1부작에서 남긴 희대의 명대사 '나는 네가 누군지도,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내 딸을 잡아가면 너를 찾아내고, 너를 죽일 것이다.'와 'Good Luck'은 언제 들어도 몸에 소름이 돋는다. 그런데 '뭐야? 설마 또 주인공 딸네미 납치되는 거야?'라는 생각은 접어두라. 이번에 공개된 예고편에 따르면, 주인공 브라이언 밀스(리암 니슨)의 아내 레니가 살해당하고, 그 누명을 주인공이 다 뒤집어쓰게 되는 것으로 모자라 심지어는 '비합법적인 기관'에 쫓기며, 마지막 남은 가족인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스토리이다. 그런데 예고편에 따르면, '마지막 편답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스케일이 장난 아니게 커질 예정. 주인공이 범죄자 집단의 표적이 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LAPD(LA 경찰) 뿐만 아니라, CIA와 FBI의 추격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리암 니슨이 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모습이 기대된다.



추억과 '힐링'이 공존하는 남이섬의 진한 향기를 남기고 싶다

글 | 권오건

요즘 사람들의 중요 화두는 '힐링'이다.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다. 남이섬은 빌딩으로만 갇혀있는 일명 '빌딩 숲'에서 헤어날 수 없는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남이섬은 치유 즉, '힐링'해줄 수 있다.

청평호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반달 모양의 섬 혹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히는 남이섬이 눈에 보인다. 남이섬은 원래 완전한 섬이 아니었다. 홍수가 나게 되면 섬이 되었는데 청평댐이 세워지게 되면서 물이 완전히 잠겨 섬이 되었다. 남이섬의 이름은 남이장군에서 따왔다. 남이장군은 세조 13년에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신이었다. 하지만, 세조의 둘째 아들인 예종이 왕이 된 후 역적으로 몰려

28세에 요절하게 되었다.

그 후, 그의 가묘가 반달 모양의 섬에 묻혔는데 이곳이 지금의 남이섬이 된 것이다. 이 섬은 원래 방하리 주민들이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던 땅이었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 관광회사에서 사들여 잔디밭과 오솔길을 만들고 위락 시설을 갖추어 지금의 유원지가 되었다. 남이섬의 모습을 살펴보면 구경할 때 나무를

빼면 섭섭하다는 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멋진 숲길이 섬 전체를 수놓는다. 그 중 단연 백미는 메타세쿼이아 길이다. 메타세쿼이아는 측백나무과의 나무인데 성장이 빨라 널리 심고 있지만 야생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5,000그루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보호 되고 있다. 뽕뽕이 놓여있는 이 거리를 걸어가면 절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치유된다. 메타세쿼이아 길을 빼더라도 섬 중앙부에 있는 잔디밭은 약 8만평



남이섬은 춘천시의 끝자락이라 할 수 있고, 경기도 가평군 청과 가까운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서울 근교 생활권에 속하고, 주말이면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 관광 러시를 이룰 정도로 의미 있는 여행지라고 할 수 있다.

에 이르고 섬의 둘레에는 밤나무, 은행나무 등 유실수와 포플러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많은 자연의 산실들이 펼쳐져 있다. 아울러 축구장, 배구장 등 스포츠 시설과 수영장, 낚시터 등 사람들의 마음속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다.

요즘 사람들의 중요 화두는 '힐링'이다.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다. 남이섬은 빌딩으로만 갇혀있는 일명 '빌딩 숲'에서 헤어날 수 없는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남이섬은 치유 즉, '힐링'해 줄 수 있다.

이런 남이섬을 여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

려해 볼 점이 있다. 바로 이 섬의 위치이다. 남이섬은 수도권과 가깝게 위치해 시간에 쫓길 필요 없이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리적으로는 강원도 춘천시에 속해 있지만, 사실 춘천시의 끝자락이라 할 수 있고, 경기도 가평군청과 가까운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서울 근교 생활권에 속하고, 주말이면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 관광 러시를 이룰 정도로 인기 있는 여행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대변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지난 2002년, 대한민국의 겨울을 떠들썩하게 만든 드라마가 한 편이 나왔다. 바로 '겨울연가'이다. 배우 배용준과 최지우의 주연으로 눈길을 끌었던 이 드라마는 한류 열풍을 이끌었을 정

도로 인기 있는 작품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눈사람으로 키스하는 장면이 유명해 겨울연가의 촬영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남이섬이다. 지금도 겨울연가 촬영지가 아직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남아있어 10년이 넘는 겨울연가의 진한 향수를 느껴 볼 수 있다.

이처럼 남이섬은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들을 해소하고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남이섬을 추천한다.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피곤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남이섬에서 진한 향기의 추억을 만들어 가는 건 어떨까? **輔仁**

아이스 버킷 챌린지

차가운 얼음 바가지로 깨어난 밝고 아름다운 미래로의 약속

글 | 문부용

올 여름 (2014년 7월~8월),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핫 이슈가 있었다. 그 이슈는 세계의 많은 연예인들과 학생들이 동참을 해준 아이스 버킷 챌린지이다. 많은 연예인들이 참여를 하고, 기부를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알려졌다. 다수의 우리 학교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는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왼쪽부터 안병후 선생님, 김중환 교감선생님, 이영선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얼음물이 피부에 닿을 때 근육이 놀라 수축하는 그 잠깐의 시간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 체험을 통해 잠시나마 루게릭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고인 '코리 그리핀'의 시작으로 SNS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고인 '코리 그리핀'은 루게릭병 환자인 '피트 프레이즈'를 보고 아이스 버킷 챌린지 캠페인을 제안하였다. 루게릭병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진행성 신경근육 질환의 일종으로 정신작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근육만 무력화하는 병이다. 다시 말해서 루게릭병에 걸린다면 의식은 살아있지만 근육이 마비되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병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면서 자신의 몸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일까?

얼음이 또는 얼음물이 피부에 닿는 경험 통해 루게릭병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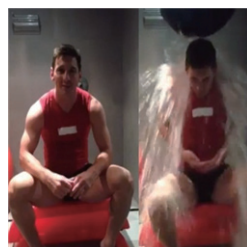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얼음물이 피부에 닿을 때 근육이 놀라 수축하는 그 잠깐의 시간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 체험을 통해 잠시나마 루게릭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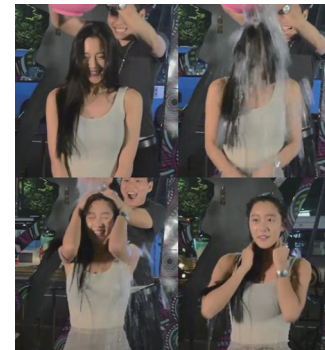
좌_ 정치인의 캠페인 참여 (경북 경주시 국회의원)

우_ 많은 걸그룹 (연예인)의 아이스 버킷 챌린지 참여

고인 '코리 그리핀'이 100달러를 기부하고 얼음물을 뒤집어 쓸 때까지 세계 사람들은 별로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세계 곳곳의 여러 유명인들이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축구 우승 메시의 캠페인 참여



섹시 아이콘 클라라의 캠페인 참여



우리들에게 감동을 준 김구라와 아들의 캠페인 참여

예를 들어 말하자면 축구를 좋아하는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느껴질 만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레알마드리드 FW), 리오넬 메시 (FC 바르셀로나 FW) 등등이 있다. 그리고 다들 알만한 세계적인 가수 저스틴 비버와 요즘 인기가 급상승한 마커 저키버그,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최고라고 뽑을 수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등이 있다. 이들은 아이스 버킷 챌린지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얼음물과 마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을 위주로 넓게 퍼져 나갔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방송인 '김구라'를 뽑을 수 있다. '김구라'의 아버지는 루게릭병과 투병 끝에 결국에 사망하셨다고 한다. 이에 따라 김구라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대한 의미가 남달랐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함께 아

이스 버킷 챌린지에 동참하고 기부도 같이 하여 이 캠페인을 국내로 빠르게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였다. '김구라' 뿐만 아니라 방송인 유재석, 김현정, 류현진, 보아, 신보라 등등 여러 방송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캠페인에 동의하고자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있다.

일부 자기 홍보 위해 이용,

사행성 놀이로 변질

여러 사람들이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이스 버킷 챌린지 캠페인을 참여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연예인들은 이러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자신을 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이 지목되기까지를 기다렸다가 지목이 됨과 동시에 SNS를 통해 자신이 위대한 일에 참여했다고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영상을 올린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까지도 전해진 아이스 버킷 챌린지 캠페인 참여는 더 이상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함이 아닌 단순한 사행성놀이로 변질가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 캠페인이 사기극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사행성이라고 의심 받았던 전효성의 캠페인 참여

ECFA라는 기관에서는 기부기관들을 감시, 감독하는데 총 기부금의 80%가 ALS 기

부에 사용되어야 인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스 버킷 챌린지 캠페인에서 기부금이라고 거두어들이는 돈은 1,200억이지만 기부에 사용된 돈은 그 중에 27%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네티즌들 사이에서 사기라고 생각되고 있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 캠페인은 잠시 우리들의 곁에서 어두운 외모인 상태로 자취를 감췄다.

현재 2014년 11월, 여름부터 현재 가을까지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뉴스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걸스데이'의 헤리 양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했다고 인터넷 언론에 소개 된 적이 있다. 헤리는 현재 '진짜 사나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헨리에게 지목을 받아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기사는 다시 한 번 우리들 가슴 속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캠페인을 상기시켜줬다.

비록 사기극이라고 밝혀지기도 하고 일반인들에게 사행성 놀이로 발전했는지 몰라도 이번 캠페인이 우리들에게 루게릭병을 알려준 것은 사실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을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머릿속에는 루게릭병을 잊지 못하게 못을 박아 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캠페인을 우리 사람들이 건전한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는 황금 열쇠를 쥐어주는 것이 아닐까? **【補仁】**

아이스 버킷 챌린지 캠페인 참여는 더 이상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함이 아닌 단순한 사행성놀이로 변질가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 캠페인이 사기극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알고 타는 자전거

바퀴 굴러 만나자, 새로운 세상과의 놀라운 교감

글 | 박선후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스쿨버스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교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는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MTB, 로드, 픽시 자전거이다. 자전거를 타면서 자신이 타는 자전거에 대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부품이 쓰이는지 잘 모르고 타는 학생들이 자신의 자전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길 바라며 기사를 작성해 보았다.

자전거의 종류



엘파마 에포카 2500, 50만원대

로드 자전거

도로에서 스피드를 내기 위한 자전거로 타이어의 폭이 좁고 매끈하다. 또한, 대부분 핸들이 아래로 휘어진 드롭바 형태로 제작되어 상체를 앞으로 구부려 타게 되는데, 이는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줄여 속도를 높여주고 오랜 시간 자전거를 타도 덜 피로하게 해준다. 프레임과 부품이 가벼운 재질로 되어 있지만 타이어가 워낙 얇고 매끄러워 비포장도로와

같은 오프로드에서는 타기 힘들다.



데브그루, 40만원대

픽시 자전거

픽시라 부르는 이 자전거의 원래 명칭은 '피스트 기어 바이크(Fixed Gear Bike)'로 단 하나의 기어를 가진 자전거를 의미한다. 평지 위주의 라이딩이 가능하고 브레이크가 없어 페달을 뒤로 돌리며 뒷바퀴를 제동하는 기술로 멈춰야 하기 때문에 익숙해지기까지 꽤 연습이 필요하다.(그래서 초보자들은 거의 앞

브레이크를 달고 라이딩 한다.) 때문에, 예쁜 디자인만 보고 덜컥 구매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은 최고의 매력으로 꼽히며, 자신이 원하는 타이어, 핸들 등으로 주문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픽시만의 개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삼천리 모멘텀 30만원대

하이브리드 자전거

로드 자전거와 산악자전거의 장점을 모아

서 만든 생활용 자전거로 크고 얇은 타이어로 만들어 도로를 가볍고 빨리 달릴 수 있으며 핸들은 산악자전거처럼 일자 형태로 되어 있어 잡기 편하고 안정감 있게 달릴 수 있다. 출퇴근이나 통학, 적당한 운동을 위해 다용도로 이용하면서, 큰 바퀴의 빠른 스피드도 즐기고 싶다면 하이브리드가 제격이다. 디자인이나 맛보다 실용성을 찾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MTB자전거

비포장도로나 산길을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로드 자전거와는 반대로 두껍고 울퉁불퉁한 바퀴를 가지고 있다. 산악자전거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과 견고함이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파워 넘치는 스포츠를 원한다면 산악자전거가 제격. 숲 속 깊숙이 질주해도 끄떡없다.

로드 자전거의 구동계

여기에서 로드 자전거는 다른 자전거들과 달리 거의 구동계 등급으로 자전거의 가격이 결정된다. 자전거 구동계 회사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시마노(simano)라는 회사의 구동계 등급을 알아보자.

SHIMANO®

투어니-클라리스-소라-티아그라-105-올테그라-듀라이스
(맨 좌측이 최하위 등급이며, 우측으로 갈수록 상위 등급이다)

시마노 로드 부품은 생활형 부품인 투어니(3×7, 2×7)부터 시작해 입문용 부품군인 클라리스(3×8, 2×8), 소라(3×9, 2×9), 티아그라(3×10, 2×10)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105부터 듀라이스까지는 중상급 부품으로 2×11단 변속기가 마련된다.

픽시 자전거의 트릭

픽시 자전거는 하이브리드와 로드 자전거와 같이 페달을 뒤로 돌릴 수 있는 프리휠이 아니기 때문에 바퀴가 굴러갈 때 자동으로 페달이 굴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스킨딩(페달을 뒤로 돌리며 뒷바퀴를 제동하는 기술)이라는 기술을 많이 연습해야 한다.



스킨딩하는 모습

스킨딩 말고도 다른 종류의 트릭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탠딩(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서있는 기술)과 베이 키(뒤로 가는 기술), 윌리(앞바퀴를 들고 가는 기술)가 있다. 스탠딩은 픽시 자전거에 발에 착용하는 스트랩이라는 발을 고정하는 밴드가 있는데 멈출 때마다 밴드에서 발을 빼내기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술이다.



스탠딩을 하는 모습

페이키는 픽시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이다. 일반자전거들은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지만 픽시는 균형을 잘 잡고 뒤로 페달을 밟으면 뒤로 나아간다. 중심잡기가 매우 어려워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



페이키를 하는 모습

윌리는 앞바퀴를 들어 라이딩하는 기술로 윌리의 최고의 중요한 점은 중심잡기다. 앞바퀴를 업할 때 페달을 힘차게 밟아 들고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페달을 밟아 줘서 앞바퀴를 든 상태로 돌진하면 된다. 업할 때 너무 세면 뒤로 넘어가고 너무 약하면 바로 떨어져 버리니까 적당한 힘 조절도 필수이다.



윌리를 하는 모습



자사고 폐지 논란

이상과 현실 속, 혼란스러운 교육계

글 | 이정현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조희연 후보가 당선되면서 '일반고등학교 살리기' 목적 하에 자사고 운영 평가제를 통해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학교인 하내고 상산고 등 23여 개의 학교가 평가제를 통해 폐지 여부를 나눴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자율 공립 고등학교는 신입생 우선배정이 폐지되고 초빙교사제도 축소되었다. 더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혁신학교 지원과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이 7조 4천억 원 임에도 불구하고 6억 원이 부족하여 고등학생 1, 2학년이 9월 모의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자사고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얼까.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기에 도입한 학교 모델로 기존에 있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모든 학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교육관계 법규의 규정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의 자율이 보장되는 학교를 뜻한다. 따라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교사 선임, 학생 선발 등의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다. 현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전국 49개교에서 운영되고 있

으며 5년 단위로 평가하여 재지정이나 취소 여부를 평가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반고등학교 살리기와 자사고 축소 및 폐지를 위해 자사고 운영평가제를 실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가 자율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통해 국영수 단위 수를 늘려 공교육의 틀을 무너트리고 우수학생을 선발

하는 입시학교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과 자사고의 일반고등학교보다 우수한 대입진학률로 인해 대학에 존재하던 학벌사회가 고등학교부터 형성될 수 있다는 점, 자사고의 우수한 학생 몰림 현상으로 인한 일반고등학교의 슬럼화 등을 이유로 꼽으며 자사고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반발한 자사고 학부모들과 교장들은 자사고 폐지 집회를 열고 법적 대응도 준비하는 등 자사고 폐지 정책에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

을 보이고 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정책을 1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발을 가라앉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자사고 찬반

그렇다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보는 시선은 어떠한가.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한 서울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60% 이상이 자사고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일반고등학교 전환에 반대하는 시민은 22.9%로 여론은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로 교육 불평등 심화, 일반고등학교의 슬럼화,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꼽았으며, 반대하는 측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점과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자사고 폐지 찬성 비율 중 현 자사고 문제와 관련성이 깊은 30~40대의 비율이 약 6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사고가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인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들은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 먼저 자사고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은 자사고 폐지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교육의 질적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다. 학생들은 각각 성취도가 다르며 중학교에 들어가지만 해도 학생마다 학업 성취도가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예시로 수학을 들자면 나눗셈과 곱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부터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도 있는데 이 차이는 고등학교에 가서는 더욱 심화된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 간의 실력차이를 최소화 시킴으로써 학업의 수월성을 향상시켜 교육 경쟁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자사고가 폐지된다면 학생들 간의

편차를 낮추기 위해 학교 입장에서는 상위권과 하위권의 중간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시켜야 하기에 학생들은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하위권은 하위권대로 수업에 흥미를 잃어 자칫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교육의 질 저하는 공교육 보다는 사교육 의존을 형성할 경우가 높는데 대학입시로 인한 사교육 의존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사고 폐지를 통해 공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한 자사고 폐지 주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사고로 인한 일반고의 슬럼화는 자사고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반고등학교 내에서 문제점을 찾아봐야 한다. 최근까지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다 자사고로 전학해 온 학생의 사례에 따르면 한 학급의 1/3은 수업을 듣는 등 마는 등 하고 나머지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한다. 모든 일반고등학교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일반고등학교의 수업환경은 이런 형태를 보인다고 한다. 이런 수업환경에서 자사고 폐지로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반마다 2~3

명씩 배치된다고 한들 그 학생들의 내신성적만 올라갈 뿐이지 수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기대하기는 힘든 부분이다. 오히려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폐지하는 것보다 자사고 일반고등학교 전환 시 운영지원금 14억 원을 일반고등학교에 투자해 일반고등학교의 수업환경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자사고는 폐지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관심대상이다. 전국 단위로 자사고 상위 10개 학교는 대부분 경쟁률이 2대1을 넘어섰고, 서울 한정으로 보더라도 24곳 평균 경쟁률은 1.7대 1로 오히려 작년대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보더라도 자사고 폐지에 관한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자사고를 대체할 만한, 아니면 일반고 지원을 통해 일반고의 수준을 학부모나 학생이 만족할 수준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 자사고 폐지를 외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



자사고는 폐지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관심대상이다. 전국 단위로 자사고 상위10개 학교는 대부분 경쟁률이 2대1을 넘어섰고, 서울 한정으로 보더라도 24곳 평균 경쟁률은 1.7대 1로 오히려 작년대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모두가 만들어가는 소통하는 학교 BOIN



- 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 3 2014 새내기 입학식
- 4 5 학부모 총회
- 6 전교사 학생맞이 행사
- 7 교사 동호회
- 8 9 공주 빅프로젝트



"보인고등학교는 자기 스스로 공부할 줄 아는 학생을 기릅니다.
공부를 하며 차근차근 목표를 이루어간다는 뿌듯함이 학생들의 하루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 10 체육대회
- 11 소록도 봉사
- 13 리더십 인성캠프
- 14 15 걸쳐로드
- 16 수능 출정식
- 17 예비 고3 발대식
- 18 보인고 vs 도르트문트

무작정 잡고 물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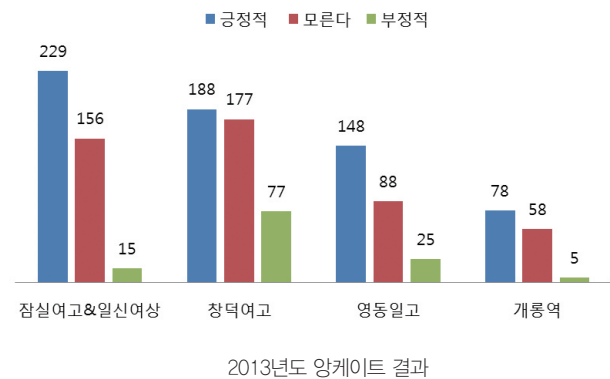
1,000명에게 알아보는 보인고의 이미지 조사 2탄!
발전하는 보인고, 우리가 만들어낸다.

취재 | 교지편집부 PlayBoin, 글 | 박한재 (편집부장), 안규석

기억하는가? 작년(2013년) 교지편집부 PlayBoin은 “당신이 생각하는 보인고의 이미지는?”이라는 질문으로 개롱역과 근처 여고에서 ‘보인고의 이미지 조사 양케이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결과를 2011년도 양케이트 결과와 비교한 기사를 제작하였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조사 지역 범위가 80% 일치하였다는 것!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이미지가 성장했음을 알 수는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보인고의 이미지를 알 수는 없었다. 그래서 2014년 PlayBoin에서는 훨씬 넓은 범위로 나아가 보인고의 이미지를 조사해 보았다.



당신이 생각하는 보인고 이미지는? (2013)



2013년도의 양케이트 결과는 위의 차트와 같았다. ‘긍정적’ 643명, ‘모른다’ 479명, ‘부정적’ 154명(총합 1276명)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한 개롱역에서 참여 인원 대 ‘모른다’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아이러니함이 있었지만, 2011년 조사 결과에 비해 월등히 성장한 보인고의 이미지를 대변해 주었었다. 2014년 양케이트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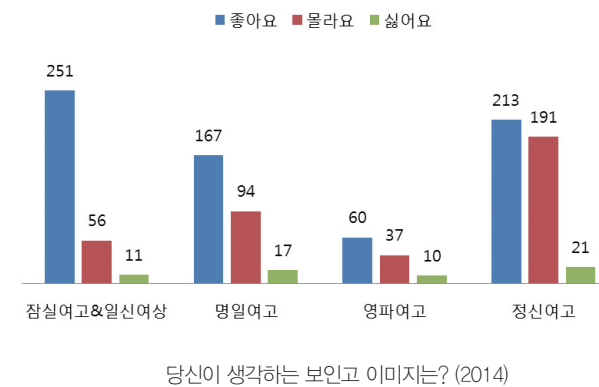
할 점은 위에서도 강조했듯이 바로 넓어진 범위이다. 범위의 변화는 아래의 지도와 같다.



파란색(2014) 빨간색(2013) 노란색(보인고)



잠실여고&일신여상을 제외하고 그 영역이 확실히 넓어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위 범위에서 조사한 2014년 보인고 이미지 조사 양케이트의 결과는 아래 차트와 같다.



‘좋아요’ 691명, ‘몰라요’ 378명, ‘싫어요’ 59명(총합 1128명)으로 작년에 비해 참여 인원이 약간 적지만(차이 148명)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 그 범위가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비슷하다는 것은 보인고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변 지역을 대표하고자 시행했던 잠실여고&일신여상 양케이트의 결과도 인상적이었다. ‘좋아요’를 선택한 학생의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비해 ‘몰라요’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대폭 감소했다. 주변 지역에서의 보인고의 인지도도 상승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번 양케이트 결과를 통해 보인고의 이미지와 인지도가 대외적으로 많이 좋아졌음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위의 결과를 자랑스러워하고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하는 보인고를 기대해 본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 살짝 물어본 선생님 비밀, 남다른 속마음들



1. 모르고 늦잠을 자다가 수업에 늦었다. 나만의 대처방법은?

- 당황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히 교실에 들어가 수업한다. (강유명 선생님)
- 늦잠 말고 낮잠. 데리러 안 오면 땡 (이영석 선생님)
- 일단 더 잔다. (김용진 선생님)
- 전과가 있어서 대처법은 기발하게 쓰지 못하겠다. 사과해야지 뭐 (전재훈 선생님)
- 그럴 리가 없다.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가정임. 내가 보인의 열리버드요 알파다. (이재광 선생님)
- 늦은 시간만큼 쉬는 시간을 깎거나 보강을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학생들은 손사래를 치며 수업에 늦으신거 전혀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말한다. 수업에 늦었지만 당당하고 뻔뻔해진다. 이 상황의 주도권은 이제 내게 있다! (보인고대표미녀)

2. 학생들의 행동이나 대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 “선생님 정말 한화팬이에요?” (강유명 선생님)
- 다재야 너의 아이유 노래는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이영석 선생님)
- 이원재 과장+팔 벌리고 뛰기 (김용진 선생님)
- 쌤 국제결혼 많이 한대요 (안병후 선생님)
- “선생님 잘생겼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세뇌 됐다. (백기곤 선생님)
- ‘다만 1학년때와 비교해보면 수업방식, 필기 등 강의 방법이 변한게 없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2014 교원평가 중 어느 3학년이 (전재훈 선생님)

- 리버풀 짱 맹구(맹유9위) 하나 12월14일 기준 그런 소리 없어졌음 (이재광 선생님)

3. 열강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처해졌다. 어떤 상황인가?

- 마이크 건전지가 다 되어 생묵으로 수업해야 한다. (강유명 선생님)
- 너무 열강해서 수업이 너무 일찍 끝났다... (한 30분 정도) 어찌지? (이영석 선생님)
- 돌... 훗 (김용진 선생님)
- 와이프가 보고 싶어졌다. 당장! (백기곤 선생님)
- 누군가 가스를 내보내서 애들이 흐트러지는 때? (양혜리 선생님)
- 학생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나 혼자 흥분했던 것이다. (보인고대표미녀)

4. 힘든 하루 일과에서 힘이 되는 소소한 것들이 있다면?

- 오늘 자습감독이 아닐 때 힘이 됨 (강유명 선생님)
- 수업들어갔는데 안 닦여있는 지저분한 칠판 내가 깨끗이 닦아줄게~♥ (이영석 선생님)
- 너희는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들 (백기곤 선생님)
- 수업 미리 들어가서 애들이랑 노가리 까고 있을 때 (이재광 선생님)

5. ‘정말 학교 가기 싫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 아침에 입은 옷이 맘에 안들 때. 이젠 뭐 입을게 없어. (이영석 선생님)
-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출근일 때. (양혜리 선생님)

창덕여고(교지편집부, 여학생)에 대해 궁금한 점 모아, 모아! 우리들은 모르는 금남의 공간 궁금하지 않으세요?

글 | 권오건, 취재 | PlayBoin

화창한 어느 봄날, 일곱 명의 사나이들이 창덕여고 교지편집부 인터뷰에 나섰다. 창덕여고의 내부 모습은 참으로 신기했다. 호그와트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참신한 디자인이 눈에 띄었고, 신비한 분위기가 풍겼다. 많은 기대를 안고 따로 마련된 교지편집부실로 들어갔다.

Q 간단한 동아리 소개와 부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일단은 저희 창덕여고 교지편집부는 반세기의 전통을 자랑하는 동아리고, 저희는 200페이지가 넘는 교지 ‘백송’을 만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편집실을 따로 만들어줘서 더욱더 교지를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탐방 등 많은 활동을 해 굉장히 할 일이 많은 동아리이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동아리인 것 같아요.

Q 먼저 창덕여고 학생으로서의 질문을 드릴게요. 창덕여고라서 당당했던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A1 오금이나 방산고 아이들 사이에서 창덕여고 교복 입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당당한 것 같아요.

A2 창덕여고가 되게 공부를 잘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어서 저도 교복을 입고 학원을 간다거나 이럴 때 자부심이 있어요.

Q 창덕여고생이 생각하는 창덕여고의 분위기는 어때요?

A 시험 기간에만 열심히 공부하고 평소에는 잘 지내고 수도도 떨고 그래요.

Q 창덕여고의 좋은 점과 좋지 못한 점을 말해주세요.

A1 일단 좋은 점은 다른 일반고 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더 좋고 아무래도 여고라서 편하기도 하고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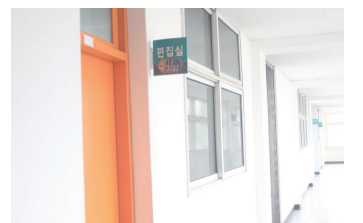
생님들도 좋은 편이고 친구들도 공부에 대한 의지도 있고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이 있다면 학교 내신 받기가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 하고 또 한 가지를 뽑자면 이젠 좀 설이지만 학교에서 여고 과담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뒤로 귀신 목격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귀신을 봤고(뭐라?!!!!) 그런 면에서는 좀 으스스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Q 창덕여고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A1 학교가 예뻐요. 학교 시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아까 보셨을 것 같은데 호그와트라는 별명도 있고 뭐 학교 시설만 좋아요.

A2 그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 자유롭고 학교 예산도 많이 나오는 편이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창덕여고 교지편집부 학생들의 의견을 창덕여고 전체의 의견이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창덕여고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창덕여고가 영화 ‘여고 과담’의 촬영지였다는 것은 다소 생소한 얘기였지만 학교가 풍기는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귀신을 봤다는 경험은 이런 학교의 분위기와 여고생의 깊은 감성이 만든 허상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낮에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에 안



창덕여고 교지 편집실



창덕여고 교지편집실 내부



창덕여고 교지편집부 부원들의 모습

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Q 다음으로 교지편집부 부원으로서의 질문을 드릴게요. 학교 교지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뭔지 말해주세요.

A1 저는 하나의 큰 주제에서 여러 가지 갈래로 제목을 많이 해서 쓰는 특집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A2 저 같은 경우에는 탐방 기사 같은 것도 좋았고 졸업생 앙케이트 기사를 보며 1학년으로서 재미있고 여고와 고3이 이런 거구나 하고 좋았어요.

Q 필기시험과 면접 등 입부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는데 교지편집부에 지원한 동기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A1 제 꿈이 기자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글을 많이 쓰고 경험을 쌓는 게 좋기도 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고요. 창덕여고 교지가 되게 좋은 말을 중학교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창덕에 오면 꼭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A2 저는 교지편집부를 처음 봤는데요.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글을 쓸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동아리를 통해 경험을 쌓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논술시험을 거쳐야 할 수 있는 창덕여고 교지편집부. 뿐만 아니라 불을 끈 채로 무섭게 면접을 진행해 신입 부원들이 모두 울었다고 한다. PlayBoin도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였다.

Q 교지에 꼭 쓰고 싶고 취재하고 싶은 나만의 기사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저는 직업탐방 쪽을 쓰고 싶어요. 제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고3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아직 꿈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방향을 잡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작게나마 교지편집부 활동을 하면서 직업탐방 기사를 쓰는 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Q 동아리 내에서 군기 잡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선후배 간의 예절을 당연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잘못을 고쳐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것에 굉장히 감사를 느껴요. 학교는 사회 축소판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여기서 제대로 실현하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해요.

Q 나에게 교지란 000이다.

A 나에게 교지란 1년 동안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동아리들도 방송반이 아닌 이상 특별히 활동 하는 게 없는데 저희는 교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니까 힘들 수도 있지만 꽤 보람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뿌듯한 것 같아요.

Q '백송'의 탐방 기사를 보면 연예인들과 여러 유명인을 만나 인터뷰한 기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든 부분일 수 있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학교의 지원이 있나요?

A 아니요. 다 인맥이에요.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안해주고요. 되게 힘들게 섭외하고, 뭐 2시간 기다려서 5분 인터뷰하고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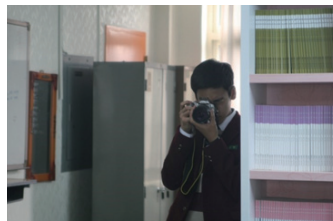
모두들 교지 '백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뚜렷했고, 열정 또한 대단했다. 우리 PlayBoin도 뒤지지 않지만 배울 점이 많았다.

Q 지금부터는 여고의 학생으로서의 질문을 드릴게요. 학교 안과 밖의 모습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A 애들이 학교에서 남자를 보면 "우와! 남자다"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막상 남자를 눈앞에서 만나면 조금 양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화장 잘 안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요.

Q 처음 여고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A1 여고에 대한 환상은 딱히 없었고요. 여고에 대



촬영기자 김은빈 학생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며,
왼쪽부터 안규석, 박한재, 민정원, 김용휘,
문상혁, 권오건 기자

한 생각이라고 하면 솔직히 여자들만 모여 있으니까 학교 폭력이나 그런 게 심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애들도 착하고 그냥 뭐 여고 나름대로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A2 저는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더럽고요 애들이. 시험기간이면 머리를 안 감아서 좀 많이 그렇고 물건 짐 같은 거 옮길 때 저희가 다 옮겨야 된다는 게 싫어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체육복을 갈아입을 때 밖에 나가서 갈아입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Q 여고 내에서도 여자끼리 외모를 비교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A 외모요? 친구들끼리 비교하긴 하는데 뭐 특별히 신경 쓰는 건 없고요. 애들을 보면 아침에는 초체하게 왔다가 점심시간이 지나가면 갑자기 아이들이 되어 있어요.

Q 지나가다가 나보다 예쁜 여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A 나보다 예쁜 여자는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아, 참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예쁘고 멋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라고 무조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해요.

Q 또, 지나가다 남학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A 거리에서 남학생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남자구나 하고요. 축제 가서 남고 학생들을 보면 정말 '멋있다!'라고 해요.

Q 보인고에 대한 생각과 주변 남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해주세요.

A1 보인고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냥 머리 되게 짧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한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A2 음, 저는 보인고는 나름 괜찮은 학교인 것 같아요. 오빠들이 보인고 다녔는데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보인고는 좋은 학교인 것 같고 기대 이상으로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정말로 좋아하는 남고는 없는 것 같아요.

Q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나요?

A 수다 떨고, 자고, 먹고, 뭐 남고랑 비슷해요. 저희도 막 운동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저희 반은 지금 남자 아이돌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광란의 쉬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반 마다 다르겠조?

Q 만약에 자신이 남자였다면 뭘 해보고 싶나요?

A1 그 뭐지? 남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학교 수업 진도가 빠르면 밖에 나가서 축구 한다는데 그거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성 친구와 막 사귀어보고 싶어요.

A2 저는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응원해도 소리가 묻혀서 남자들처럼 크게 응원해보고 싶어요.

Q 여고여서 편한 점, 불편한 점, 그리고 여고여서 할 수 있는 점은 뭔가요?

A1 여고여서 편한 점은 공학과는 다르게 옷도 되게 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고, 반에 들어가면 좋은 향수 냄새도 풍기고, 화장품 냄새도 풍기니까 좋고 편해요.

A2 그리고 약간 저희 학교에 대한 환상이 깨질 수도 있는데 비울 때 양말이 다 찢으면 옷걸이에 걸어서 선풍기에 걸어 놓거든요? 이때 선풍기를 틀면 대박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는데 좀 편한 것 같기도 해요. 또, 급식 먹을 때 아주머니에게 많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고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Q 여고생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 거리엔 무엇이 있나요?

A 일단은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아이돌 얘기 밖에 없고, 2NE1이나 A-pink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Q 학교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일로는 무엇이 있는지 말해주세요.(공부는 제외)

A 매점 가고, 자고, 얘기 하고, 네 뭐 이런 것 밖에 없어요.

창덕여고가 보인고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여고인 만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를 통해 창덕여고에 대해, 여고생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보인고 학생들도 이 기사를 읽고 여고생, 여학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렸기를 바란다. 끝으로 인터뷰에 성의껏 답한 창덕여고 교지편집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1,2학년 앙케이트

아직, 갈길 멀고 할 일 많은 우리들 인생사

1.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의 명대사 또는 특정 행동이 있다면?

- 최지웅 선생님 – 룡타임노씨,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11008, 박성진)
- 김범두 선생님 – 아이 토라이아 (20606, 김진우)
- 김범두 선생님 – 아디다스는 아디가 다스한거야? (20620, 양재모)
- 형미옥 선생님 – 보면 몰라? 돈 벌고 있잖아 (10510, 나유진)
- 김홍민 선생님 – 대박살을 내버리겠으니까 아주 (익명)
- 김홍민 선생님 – 가슴 가운데를 만지시는 것, “아싸 마무리”, “그만해라”, “signal word~” (21221, 이동원)
- 이형수 선생님 – 아리가또 조프모마떼로 아메리카노(11116, 박용학)
- 조희경 선생님 – 눈 뒤집고 프린트 숫자세기, “내가 화가나면 그냥 도망가” (익명)
- 백종훈 선생님 – 왜 다들 자지? 찰판 좀 보지? (11109, 김재현)
- 이성문 선생님 – 빠라빠라 (10706, 김승찬)
- 전재훈 선생님 – 내가 나중에 커세. 강연을 하는데! 애들이 안듣고 놀면 ‘아 내 강의가 쓰레가구나’ 생각해 (익명)
- 김현열 선생님 – that's collect, 오늘의 핫이슈 (10814, 박준영)

2. ‘아...내가 보인고 학생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 아침에 애들 얼굴이 익숙할 때 (10510, 나유진)
- 미용실 갔을 때 아무 말도 안했는데 미용실 누님이 “보인?” 할 때 (11112, 김현)
- 거울을 봤을 때 못생긴 애가 승복을 입고 있을 때 (20436, 허원준)
- 친구가 게이라고 태고 걸 때 (21133, 한민수)
- 세븐에서 머리 자를 때 누나가 “이게 걸렸어요?” 할 때 (20319, 여봉준)
- 외출증 받으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올 때 (20531, 장민기)
- 남자가 좋아질 때 (20711, 남궁한빛)
- 급식 먹을 때 1학년이 개처럼 뛰어 갈 때 (20425, 이정재)
- 셔틀버스를 타고 올 때 항상 현대부고 버스가 겹치는데 거기 버스에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하하호호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우리 버스는 침묵을 지킬 때 (11032, 한현진)

3. 아저하기 싫을 때 시간 때우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 집에 가서 볼 아동의 컨셉을 고민한다 (10232, 하중현)

- 비트에 몸을 맡겨 챗 (10928, 조세현)
- 유인나의 볼륨을 높여요(KBS Cool FM 89.5MHz) (익명)
- 야한 생각 (21234, 홍승철)
- EXO 으르렁 반복 재생 (익명)
- 아이유 생각♥ (11024, 윤주현)
- 패딩으로 패드 가리고 나루토 보기 (10531, 채명수)

4. 길을 가는데 한 여학생이 말을 건다. 누구인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10517, 신재성)
- 여동생, 꺼지라고 (20716, 박초성)
- 저 귀두컷 좀봐♥ (10108, 김태현)
- 리본 : 부러진 검은 붙이면 돼!!! (20802, 고준성)
- 중학교 동창, ‘어머 너 머리 병X 뿔구나’ (11129, 장한석)
- 그런거 안 키우는데 (20606, 김진우)
- 모르는 사람하고 말을 섞으면 안된다 (11033, 허준)

5. 책상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내 앞에 있다. 다음 상황은?

- 어둠 속에 내가 있지 (10631, 진정현)
- 제드가 표창을 날릴 것이다 (20802, 고준성)
- 당황하지 않고 꿈이라고 생각한다 (20823, 이주형)
- 친구가 나의 거기를 만진다 (11122, 이병준)
- 그다음 타격을 예측하고 회피행동을 취한다.(21109, 김지원)
- 돌연사 (20913, 박종민)
- 이마에 딱밤을 맞는다 (11012, 신재운)
- 니 뒤에 KHH(21222, 이동현)
- 내꺼가 너무 커져버렸다.(20302, 김동혁)



6. 보인고에서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있다면?

- 아홉시 오십오분 (익명)
- 아침에 아자가 없다는 소문이 돌 때 (21105, 도훈)
- 급식표가 안나왔을 때 급식 (10527, 장준웅)
- 09토레스 42강화 (11025, 이승우)
- 태풍을 때, 폭설내릴 때, 시험끝나고 징거버거 먹을 때(20425, 이정재)
- 치킨마요 나올 때(10706, 김승찬)

7. 보인고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면?

- 어제 리신 음파 못 맞춘 것 이거 쓴 것(20802, 고준성)
- 매순간 이곳에서 숨 쉴 때마다 (익명)
- 무릉도원에서 고추밭으로 전학 온 것(20909, 김현수)
- 입학원서 넣을 때(20606, 김진욱)
- 09토레스 42강화 (11025, 이승우)

8. 주말 밤 한통의 메시지가 왔다. 누구에게 무어라고 온 문자일까?

- 이형수 “베넷빙수 먹으러 가자 베넷 병X아 (익명)
- 나한테 어떤 여학생이 좋아한다고 알려주는 내용(10519, 윤병익)
- 114: 데이터 사용량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10631, 진정현)
- 모두의 마블 클로버(11017, 유승훈)
- 보인고 AAa+ 생활기록부 12월 21일까지 최종 제출!! 미작성시 생기부 작성안함 -김영만쌤_ (20606, 김진우)

9. 내가 선생님이 되고 선생님들이 학생이 된다면 가장 가르쳐보고 싶은 선생님과 그 이유는?

- 이승은쌤-예빠서(익명)
- 이승은쌤-좋아하는 쌤이기 때문에(10420, 윤지원)
- 류신형쌤-담배피는거 잡고 벌주고싶다 (10213, 상기현)

- 한만준쌤-내가 더 세게 때릴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익명)
- 한만준쌤-딱밤 때려보고 싶다.(10521, 이동현)
- 한만준쌤-저도 선생님 이마에 딱밤을 한번 날려보고 싶습니다.(10626, 이현빈)
- 이찬쌤- 문제 다 풀고 놀고있으면 “미국이야?”하며 때리고 싶다 (11122, 이병준)
- 김홍민쌤-나도 뺨을 “콧구하세요 콧구”하면서 때리고 싶다(21208, 류석화)
- 이재광쌤-대놓고 맨유 욕하려고 (10513, 박태원)
- 이재광쌤-내 친구니까(10405, 김진수)
- 전재훈쌤-아침봉사 시키고싶어서 (20216, 오승민)
- 전재훈쌤-복수할꼬야 (20201, 고대원)
- 이성경쌤-학창시절에 한 괴요미였을듯(11031, 차민재)
- 최지웅쌤-매로 다스려 보고싶다(11029, 정진수)

10. 시험 보다가 너무 어려워서가 아닌 다른 이유로 화가 났던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 시험문제에 나온 노래를 흥얼거리는 날 발견할 때 (10531, 채명수)
- 6곱하기11을 계산했는데 676이 나왔을 때 그대로 답안지가 마킹했다. (10517, 신재성)
-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너무 쉬워서 화가 났다 (20620, 양재모)
- 개롱초등학교 운동회 소음 (10211, 박연준)
- 내가 너무 잘생겨서 (20402, 구희성)
- 병익이가 나온거 (10419, 유태완)
- 이게 쉽게 낸거래 (10513, 박건웅)
- 앞자리가 방구 똘 (10122, 유민성)
- 선인들의 독서법이 한 문제도 안 나와서 (10108, 김태양)
- 다 풀고 자고 싶는데 어떤 자제도 다 풀면할 때 (10136, 김지환)



3학년 앙케이트

후배들아, 꿈은 크게 잡고 달려가라

1. 선생님들의 표정이 안 좋으시다. 그 이유는?

- 어제 밤 반 애들의 탈주 (30412, 백종건)
- 거울 보셨네 (30622, 이준호)
- 대입은 논술이 아닌 것 같대 (30501, 강정현)
- 아침에 사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아서 (30525, 이준하)
- 오양욱 선생님의 긴급회의 (30625, 이현성)
- 중력의 힘을 수십년동안 받으셔서 입꼬리가 내려가신거다 (31105, 김동찬)
- 편의점의 허니버터칩이 다 팔려서 (30609, 문준성)
- 자습감독 때문에 연애를 못해서 (30219, 윤정석)
- 표정 때문이 아니라 인상이 사나워서 그렇다 (30805, 김동학)
- 조세상이 재수를 한댄다 (30818, 이명신)
- 어제 회식이었군. (30123, 장성호)
- 내가 선생님이나? (교원평가 잘 안 나와서 연수가야하기 때문에) (31131, 한승연)
- 뭘까 (31128, 조세상)

2. 자기가 SKY에 갈 거라는 망상을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 그럼 넌 우송대야! (30707, 박세웅)
- 너희가 정시를 쓸 때 쯤에는 서울엔 대학이 없다고 생각하렴 (30107, 노영빈)
- 상명대, 강릉대, 예일대 (30935, 하민철)
- 그게 왜 망상이야 (31125, 이주현)
- SKY가잖아. 성수대교, 강남대교, 양화대교 (30102, 김성권)
- 이 질문의 여취 선택 정말 마음에 안드네요. 후배들아, 꿈은 크게 잡고 달려가라. 정말 3년간 높은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든 기회가 찾아온다. 그러면 망상이 아닌 현실이다. 희망을 가져라. 절대 망상이 아니라 가능한 거다. (31118, 서연교)
- 1학년 모의고사 2번 1개 틀린애가 '겨우' 연세대 갔다. (31006, 강진성)
- 난 아직도 망상중이라 할 얘기가 없다 (30225, 정진성)
- 넌 될거 같지? (30228, 최창익)
- 허니버터칩-SKY (30609, 문준성)
- 난 갔음 ㅜㅜ (30619, 이영준)

- 지균 개꿀 (웃음) (31128, 조세상)
- 나도 갈 줄 알았는데 수능 망하더라 (30625, 이현성)
- 하늘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나도 금방 갈게 (30525, 이경섭)
- 대입은 논술이 아닐 수도 있다. (30501, 강정현)
- S-상지대 K-강원대 Y-영남대 (30723, 이재욱)
- 빨리 기술 배워서 이 나라를 뜨길 바란다 (30729, 천윤성)
- 난 고려대니까 ㅎㅎ 잘들 해보세(띠겁게) (30526, 이한울)

3. 수능 보기 전 들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다면?

- 놀아라 그럼 웃게 될 것이다. 그냥해라 그럼 울게 될 것이다. 생각해라 그럼 즐길 것이다 (30412, 백종건)
- SNS는 인생의 낭비다. (30504, 구동욱)
- 반드시 망한다 (30732, 하찬수)
- 내년에 봐 (30625, 이현성)
- 수능 300일 밖에 안남았다. 접어라 늦었어(31105, 김동찬)
- 조세상 : '카이스트는 지방대라 싫어' (31108, 김순철)
- 니 성적에 따라 니 마누라 가슴크기가 달라진다. (30216, 오상민)
- 어 시험장(잠실고등학교) 옆에 러버덕이 있네. 저기에 빠지면 되겠다 (30102, 김성권)
- 내가 수능을 니보단 잘 본다.(내가 더 잘봄) (31127, 정태민)
-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으면서 왜 평범하게 노력해? (304414, 서동호)
- (수능 전날)사면 가자 (30407, 김성연)
- 그는 좋은 현역이었습니다. (30720, 이상윤)
- 그럼 넌 우송대야! (30707, 박세웅)
- 대입은 논술이다. (30501, 강정현)
- 허니버터칩 먹을래? (30609, 문준성)
- 재수가 꼭 나쁜것만은 아니야 (31128, 조세상)



4. 학교 졸업 후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일이 있다면?

- 인터스텔라 본 날 (30720, 이상윤)
- 3-9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아낸 것 (30912, 노학승)
- 재수학원 등록하러 간 일 (31002, 김기연)
- 내가 지금 수능이 끝나서 할 일이 썩어지게 없어서 이 질문지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 (30102, 김성권)
- 보인고입학 (30723, 이재욱)
- (이미 삭제된 데이터입니다) (30504, 구동욱)
- 나루토 완결 (30526, 이한울)
- 대입은 논술이 아니다. (30501, 강정현)
- 허니버터칩을 먹은 것 (30609, 문준성)
- 졸라 맛있는 음식(저격) (31128, 조세상)

5. 고3이어서 행복했던 적이 있다면?

- 수능 끝나고 노는게 너무 재밌다. 놀기만 하다보면 재미없다. 놀이가 재밌는 것이란 걸 느끼게 해주었다. (익명)
- 숨쉬기가 재밌다. (30625, 이현성)
- 수능 끝나고 고2 애들 볼 때 (30818, 이명신)
- 잘 때 (30720, 이상윤)
- 지금, 대학 붙었거든ㅋㅋ (30924, 이승국)
- 파일노리 접속 했을 때 (30407, 김성연)

- 대입은 논술인 것 같다. (30501, 강정현)
- 허니버터칩 마지막 한 조각 훔쳐먹을 때 (30609, 문준성)

6. 고등학교 3학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 힘들다. (30728, 전익중)
- 평가원 개새이 (30723, 김동준)
- 미치지 않으면 도달 할 수 없다. (30733, 허경재)
- 살이 잘 올라 살아먹기 딱 좋은 시기 (31113, 박종빈)
- 가-승-전-허탈 (31116, 백철희)
- 난 고3이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30218, 유동선)
- 다시는 이 짓거리 하고 싶지 않다. (30805, 김동환)
- 재수를 위한 준비과정 (31026, 장건호)
- 그럼 넌 우송대야! (30707, 박세웅)
- 빠름! 빠름! 빠름! LTE워프 올레! (30405, 김도형)
- 항아리에 열심히 물 부었는데 알고 보니 깨진 거였다. (30403, 김광일)
- 평가원 개X끼들 (31101, 강병민)
- 생각보다 달콤한 19 (30415, 손유민)
- 허니버터칩 (30609, 문준성)
- 대입은 한 번 가지곤 안 된다. (30501, 강정현)
- 아 트위터 개꿀잼 (30509, 구동욱)
- 地均 (31128, 조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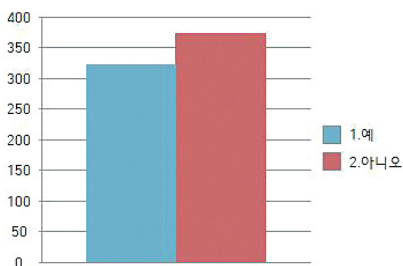
보인고 교복 만족도 조사

1학년부터 보인고등학교의 교복이 새롭게 바뀌었다. 바뀐 교복에 대해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의 궁금증과 선호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다. 이에 PlayBoin에서는 바뀐 교복에 대해 학생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했다. 조사한 결과, 총 697명의 학생들이 답변을 주었다.

글 | 문상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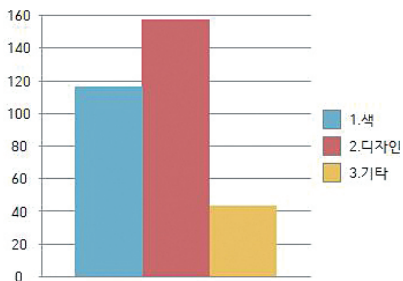


1. 새로운 교복의 디자인이 맘에 드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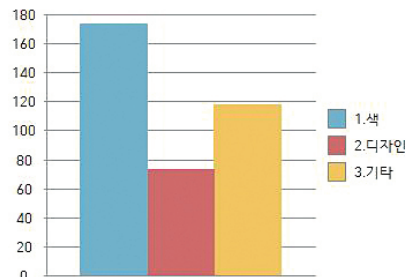
총 695명의 학생들이 답변했다. 1번 예를 선택한 학생들은 총 323명이었고, 2번 아니오를 선택한 학생들은 총 374명이었다.

2. 새로운 교복 디자인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시나요?



총 316명의 학생들이 답변을 주었다. (1번 문항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의견은 제외) 1번 색을 선택한 학생들은 총 116명이었고, 2번 디자인을 선택한 학생들은 총 157명이었다. 3번 기타를 선택한 학생도 있었는데 총 43명이 기타를 선택했고 마음에 드는 점은 바지통, 와이셔츠, 바지의 무게, 니트와 조끼, 질감 정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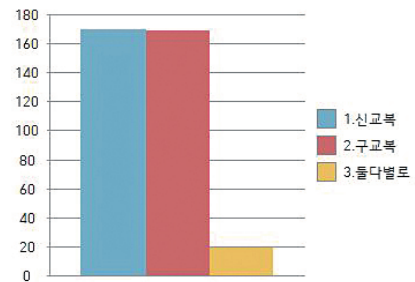
3. 새로운 교복 디자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총 365명의 학생들이 답변했다. (2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1번 문항에서 예를 선택한 의견은 제외했다) 결과가 다소 충격적이었는데, 1번 색을 선택 해주신 학생은 174명이었고, 디자인을 선택한 학생은 73명이었다. 그리고 예상 외로 3번 기타 의견이 많았다. 118명이나 기타를 선택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모여 있을 때 호그와트 같다, 싸구려 같다, 예시로 나온 것 중에 제일 별로다, 품질이 별로다, 공급업체가 별로다, 가격이 별로다, 불편하다, 불량품이 많다, 구교복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4. 새로운 교복 디자인과 구 교복 디자인 중에 어떤 것이 더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총 358명의 학생들이 답변을 하였다. (1번 문항에서 예를 선택한 제외) 1번 신교복을 선택한 학생들은 총 170명이었고, 2번 구교복을 선택한 의견은 총 169명이었다. 그리고 설문지에 3번을 만들어 둘 다 별로라고 적어주신 학생들이 19명이 나왔다.

5. 우리학교 교복이 변화하였으면 하는 점을 써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의견을 주었는데, 대다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주로 바지의 색과 재킷의 색을 통일하자, 니트와 조끼의 색을 바꾸자, 교복업체를 바꾸자(스마트로 바뀌었습니다), 품질이 좋아져야 한다. 재질이 좋아져야 한다 등등이 있었다.

끝으로 성실히 질문에 답해주신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학교의 정책 결정 시 학생들의 의견이 성실히 반영되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교복이 선정되었으면 한다.